<나의 동네> 독후활동지

(표지 이미지)

**나의 동네**

이미나 지음

**1. 책을 읽기 전에**

그림책이 작은 세상이라면, 표지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.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1) 지금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일까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2) 지금은 어느 계절일까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3)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직업을 알 수 있을까요?

4)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일까요?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?

5)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/기분이 드나요?

**2. 책 읽기**

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《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》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이라는 빵을 먹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. 이 그림책의 주인공도 어느 여름날 훅 끼쳐오는 더운 바람에서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떠올립니다.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의 단짝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합니다. 우체부가 편지를 가방에 넣어 자전거를 타고 오래된 동네의 주소로 찾아갑니다. 우체부를 따라 가만히 이 동네를 거닐어 보세요. 동네에는 따듯한 공기가 감돌고, 봄철이라 나비가 날고, 골목길에는 오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초록빛이 가득합니다.

**3. 책을 읽은 후에 내용 파악하기**

1)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동안, 주인공은 무슨 얘기를 들려주었나요?

2) 편지를 배달하러 간 곳에 주인공의 친구가 있었나요? 아니라면 누가 있었나요?

3) 주인공의 친구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상상되나요?

4) 이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?

**4. 책과 관련된 활동 하기 – 그림 엽서 그리기**

다음은 이 그림책을 지은 작가의 말입니다. 작가의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/재건축 사업으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다시 가 보고 싶은 장소나 여러분만 아는 소중한 장소가 있나요? 그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 누군가에게 전해 주세요.

할아버지 댁이 있던 동네는 온통 회색빛인 담벼락과 낡은 집이 많았습니다.

화단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백일홍이 있고, 불래라는 이름의 개도 살았습니다.

이제 그 동네는 사라졌고 같은 자리에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.

다시 그 오래된 동네를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.